

[제2021-030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1.6.25(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교육세미나 & 스포츠
연락처	323-936-3019 danylvjs@kccla.org	담당자	Daniel Kim

## 2021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WEBINAR 개최



Lectures by professors, resource books, activities, and more

Spaces limited! Register today!

THE 27TH SEMINAR!  
**KOREAN HISTORY & CULTURE WEBINAR FOR EDUCATORS**

**JUNE 28-30, 2021**  
A Free Webinar for K-16 educators

Presented by Korean Cultural Center LA and National Korean Studies

VISIT [WWW.KOREANSEMINAR.ORG/REGISTER](http://WWW.KOREANSEMINAR.ORG/REGISTER)

Over 3,000 educators from 40+ states have attended since 2004.

Earn LAUSD Salary Point and USC Units!

- ▶ 행사명 : 2021년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WEBINAR
- ▶ 일 시 : 2021. 6.28 - 30 (13:00-16:00)
- ▶ 진 행 : Zoom Webinar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국제한국학회(National Korean Studies)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세미나 & 스포츠 담당 Daniel Kim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국제한국학회(National Korean Studies (회장 김성순)와 함께 2021.6.28(월)부터 6.30(수)까지 3일동안 미국 교육자 대상 <한국 역사·문화 교육자 WEBINAR>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한국 역사·문화를 비롯하여 지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State Board of Education)가 승인한 한인 및 한인 이민사를 가르치는 학습지도안(Lesson Plan)이 포함된 인종학 교과과정(Ethnic Studies Model Curriculum)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각자 온라인 화상 세미나로 참석하는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LA 통합교육국을 중심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 애리조나, 오하이오, 워싱턴, 위스콘신, 콜로라도, 테네시, 플로리다 등의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교장, 교감, 교육 행정가, 카운슬러, 특수교육교사 등 미국내 총 14 개주에서 100 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6.28(월) 13:00 시작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위진 문화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인종학 교과과정에 포함된 한이 이민사-LA폭동, 도산 안창호-대한민국민회, Dr. 새미 리-한인사회의 리더 강의들과 그외, 한국의 정치경제 성장, 한미관계-우정의 종, 한국전통 음악교육: 사물놀이, 한국어의 특징, *Teaching East Asia: Korea* 소개, 소그룹 토의 등 3일 동안 인종학 교과과정 내용과 다양한 한국 역사·문화를 화상 세미나와 영상체험을 통해 진행된다.

동 세미나는 지난 2004년 LA한국문화원과 Mary Connor선생, 김성순 선생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한국 역사·문화 교육자 세미나와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하여 미 전역 36개주 K-12 학교의 교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수, 교육 행정가 등 약 3,500여명의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LAUSD(LA통합교육국)는 동 세미나에 대해 2008년도부터 셀러리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도 웨비나 강좌 15시간 (한국시조 웨비나 강좌 포함)을 모두 참석하고 한국 역사·문화관련 수업 교안(Lesson Plan)과 평가서 및 과제물을 제출한 참여 교사들에게 1점의 샬러리 포인트(보수인상)를 부여하고, USC에서도 교사자격증을 갱신할 때 필요한 전문성 개발 학점(Professional Development Unit) 4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박위진 문화원장은 “문화원을 대표하는 교육자 세미나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인종학 커리큘럼에 포함되 한국관련 내용과 한국 역사·문화를 미국 전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LA한국문화원은 이번 세미나 외에도 2014년 이래로 현지 지역의 교육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타주로 찾아가는 한국 역사·문화 세미나(Korean Culture Outreach Seminar)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경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끝/